

■ 내일 '온라인 개학' 단계적 시작 / 학교 원격수업 문제없나...

# 교사 역량·가정 교육여건 성패 '열쇠'

### 도교육청 원격수업 시범학교 시연 통해 막바지 점검 실시간 수업 접속자 많을 경우 끊기고 피드백도 한계

내일(9일) 중·고등학교 3학년부터 '온라인 개학'에 들어가면서 학교 현장에선 막바지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교사도 학생도 낮은 수업 방식에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뚫고 안정해 나가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9일부터 단계적 온라인 개학이 이뤄진다. 중·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오는 16일에는 고 1-2, 중 1-2, 초 4-6학년이, 20일에는 초 1-3학년이 온라인 개학으로 새 학기를 맞는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온라인 개학까지 남은 이틀간 수업시간표, 원격 수업 운영 방식 등 도내 학교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을 줄이는 대신 과제를 내는 등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있다.

이날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원격 수업을 시연한 광유진 제주대교대부설초 교사는 "교사도 학생도 플랫폼에 익숙해지기까지 하루 1시간씩 3일간 사용 과정을 안내하는 등 어려

움이 있었다"며 "화상 수업의 경우 학생 개개인에게 피드백을 주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그 대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도내 다른 학교의 걱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학교와 가정 여건, 교사의 준비 정도 등에 따라 원격 수업의 효과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이 경우 등교 개학 이후 학습 내용을 평가받을 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

교 현장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기자단과 온라인 회견에서 "(온라인 개학은) 처음 가는 길이고 갑자기 다가온 일이지 여러 우려가 있다"면서도 "현재 원격 수업을 위한 인터넷망, 기기 대여 등에 대한 점검은 끝났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halla.com



온라인 개학에 들어가기 앞서 7일 제주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제주대교대부설초와 도연초 교사들이 화상수업을 시연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 온라인 개학 Q & A / 교육부 가이드라인

### “출석 확인·수행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개학이 다가왔지만 여전히 혼란스럽다. 출석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온라인에서도 평가가 이뤄질지 궁금하다. 이에 교육부의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과 제주도교육청의 '온라인 개학 준비 상황 자료'를 참고해 정리해 봤다.

▶온라인 개학 이후 원격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원격 수업은 크게 세 가지 형태입니다. 교사와 학생이 화상으로 실시간 수업하는 '쌍방향'과 학습 콘텐츠를 보게 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콘텐츠 활용 중

심', 학생이 과제를 한 뒤 제출하면 교사가 이를 확인하는 '과제 수행 중심'으로 나뉩니다. 어느 한 가지가 아닌 이 모든 형태를 병행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원격 수업, 출결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교과담당 교사가 차시 단위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등교수업과 달리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석이 확인된 경우, 담임교사가 사후 증빙자료를 확인해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 여건에 따라 실시간 또는 사후 확인 방법을

선택해 출결을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개학 중에도 학습 내용을 평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원격수업으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출석 수업 이후에 이뤄지게 됩니다. 단,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쌍방향 수업에 한해서 원격 수업 중에도 수행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쌍방향 수업 중 교사가 학생의 수업태도, 참여도 등을 직접 관찰한 경우에는 학생부 기재도 가능합니다.

김지은기자 jieun@halla.com

## 제주 12일쯤 비소식

제주지역에 내리던 건조특보가 5일째 유지되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7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9일까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현재 대기는 매우 건조한 상태이다. 제주도산지와 남부에는 건조경보, 제주도 동부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특히 산지에 발효된 건조특보는 5일째 유지되고 있다.

한편 제주지방은 주말까지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휴일인 12일 비가 오면서 건조한 날씨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기자

## 단독주택·오피스텔 불법숙박영업 여전 제주시 긴급점검 통해 미신고 숙박업소 57곳 적발

### 시 “숙박 중개사이트 주시”

제주시 지역에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이나 오피스텔 미신고 숙박업소를 이용 불법영업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단속주목, 오피스텔 등 미신고 숙박업소를 의심되는 200여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7개소가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25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한편 3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해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이나 숙박업 혹은 관광숙박업 신고(등록)를 해야 한다. 만일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에 운영자가 거주하면서 주택 연면적 230㎡ 경우에 신고 가능하다. 숙박업은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3층·660㎡ 이하)에 위치하면서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이며,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관광숙박업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위치 건축법 등 개별법령 검토 후 관광숙박업 승인·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네이버나 에어비엔비 등 주요 숙박 중개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윤희기자 yhle@ihalla.com

## 한국 도착 하늘길 인천공항으로 일원화

### 도 “제주행 해외입국자 국내선 통해 집중 관리”

해외발 항공기 도착지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입도절차'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부터 제주공항(제주→상하이), 김해공항(김해→도쿄·김해→싱가포르) 등 모든 국제선의 도착 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 시켰다.

이번 조치는 제주와 부산 등 지역 공항으로 분산되는 해외 방문 이력

자의 입국을 인천공항으로 집중시켜 '코로나19 특별입국절차'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검사·방역 역량 강화 국내선을 통해 입도하는 해외 방문 이력자 관리에 집중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24일부터 증상발현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방문 이력 입도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제주공항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가동해 입도 즉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현재 제주로 입국하는 국제선 운항은 전무한 상태다. 송은범기자

## 도, 마을기업 긴급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마을기업의 조기 회복을 위해 '긴급지원계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도는 중간지원기관인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마을기업 피해 사례 접수창구를 운영해 살균 소독제 등이 들어있는 방역 꾸러미를 지원한다. 또 마을기업 상품도 우선 구매기로 했다.

# 한라동물의료센터

Halla Animal Medical Center

- ▶ 개원일 2020. 4. 11.(토) 오전 10시
- ▶ 개원장소 제주시 남광로 20 한라동물의료센터 (남광초등학교 옆 제주시 교육지원청 옆)
- ▶ 연락처 064)725-7577 / Fax, 725-7578 ※ 화환과 화분은 사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겨울 동안 움츠렸던 새싹들이 고개를 드는 봄의 문턱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제주 반려동물 가족들을 위한 수술전문 병원 한라동물의료센터가 문을 열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라동물의료센터는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반려동물의 행복을 지켜드리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꼭 필요한 수술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고 좋은 환경과 시설을 통해 양질의 반려동물 종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아플 때, 가족의 마음도 함께 아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중심의 의료 철학으로 반려동물 가족들에게 치유의 기쁨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려동물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한라동물의료센터의 새로운 도전에 함께해 주십시오. 소중한 발걸음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4. 원장/수의사 안재완 배상

접수실

후문(주차장 완비)

대기실

한라동물의료센터 수술실

메인 수술실 + 2수술실

처치실

인원실

한라동물의료센터

남광초등학교 SK-LPG 중천소 유니클로

제주제일중학교 제주지방병원

↑아리동방면

- 제주소방서
- 유니클로

↓시항방면